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출장개요

- 기 간 : 2021. 10. 20.(수) ~ 10. 24.(일)
- 장 소 : UAE 두바이 일원
- 출 장 자 : 총 12명(시의회 5, 시 5, BDI 2)
  - (시의회) 의장, 부의장 2, 사무처 2
  -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 담당자 2, 통역 1
  - (B D I) 원장, 연구위원 1
- 주요내용
  - 두바이엑스포 연계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 두바이엑스포 국가관 주요 인사 면담 등 유치 교섭활동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전략 논의 등



부산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 두바이엑스포 연계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및 유치 교섭활동 -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20 UAE 두바이엑스포와 연계,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및 유치 교섭 활동을 통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경쟁 우위 확보와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임.

## 1. 출장개요

- 기 간 : 2021. 10. 20.(수) ~ 10. 24.(일)
  - ▷ 출국 : 10.20.(수) 23:55, 귀국 : 10.24.(일) 20:30
- 장 소 : UAE 두바이 일원
- 출 장 자 : 총 12명(시의회 5, 시 5, BDI 2)
  - 시의회 : 의장(신상해), 부의장 2(이동호, 최도석), 사무처 2(이동원, 정원근)
  - 부산시 : 경제부시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 담당자 2, 통역 1
  - B D I : 원장, 연구위원 1
- 주요내용
  - 두바이엑스포 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추진상황 점검 및 현지 확인
  - 두바이엑스포 조직위원장, 국가관 주요 인사 면담 등 유치교섭 활동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전략 논의
  - 두바이엑스포와 연계한 주요 관광시설 현지 시찰 및 벤치마킹

## 2

## 출장 일정

- 10. 20.(수) : 부산 출발(17:15) → 인천 출발(23:55) → 두바이 도착(04:25)
- 10. 21.(목) :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관계자 간담회, 한국관 및 주요 국가관 방문(프랑스관, 러시아관), 駐두바이 총영사관 관계자 면담
- 10. 22.(금) : 엑스포 내셔널데이 참가 및 주요 국가관 방문(일본관, 사우디아라비아관), 두바이엑스포 조직위 관계자 면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등 전략회의
- 10. 23.(토) : 두바이엑스포 조직위 관계자 면담, 주요 국가관 방문(UAE관, 모빌리티 주제관), 두바이 주요 관광시설 현장 시찰
- 10. 24.(일) : 두바이 출발(03:40) → 인천 도착(17:00) → 부산 도착(20:30)

### < 세부 일정 >

일 자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일차> 10.20.(수)	17:15~18:15	· (이동) 김해공항 → 김포공항	KE1120
	18:30~19:30	· (이동) 김포공항 → 인천공항	서울본부 차량
	23:55	· (이동) 인천공항 출발	EK323 (에미레이트항공 이용) ※비행시간 9.5h
<2일차> 10.21.(목)	04:25	· (도착) 두바이공항 도착	
	05:30~06:30	· (이동) 공항 → 호텔 체크인(Early Check-in)	
	11:30	· 한국관 관계자 및 파견 직원 간담회	
	13:30	·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및 주요 국가관 방문	
	17:00	· 駐두바이 총영사관 관계자 면담	

일 자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3일차> 10.22.(금)	09:00	· PCR 검사	※귀국편 탑승 72시간 이내	
	10:30	· 내셔널데이 참가 및 주요 국가관 방문		
	11:30	· 두바이엑스포 조직위원회 관계자 차담회		
	13:30	· 일본관 및 주요 국가관 방문		
	17:00	· 엑스포 유치 교섭 등 전략 회의		
<4일차> 10.23.(토)	1팀	10:00	·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방문	의장, 산업부장관, 경제부시장
		14:00	· 두바이엑스포 조직위원회 관계자 면담	의장, 산업부장관, 경제부시장
		13:30	· UAE관 등 국가관 방문	의장, 산업부장관, 경제부시장
	2팀	10:00	· 두바이 주요 관광시설 현장 시찰 및 벤치마킹	부의장
	3팀	10:00	· 두바이 엑스포 회장 조성 현장 시찰 및 벤치마킹	국장, BDI
		17:00	· 출장 결과 평가 및 환류	
<5일차> 10.24.(일)	01:20~2:20	· (이동) 호텔 → 두바이공항	EK322 (에미레이트항공 이용) ※비행시간 8.2h	
	03:40	· (이동) 두바이공항 → 인천공항		
	17:00	· 인천 공항 도착 · 인천 공항 → 김포공항 → 김해공항		

### 3.

## 주요 출장내용

### ▣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방문

- 일시·장소 : 2021. 10. 21.(목) 13:00, 한국관
- 참 석 : 출장단(시의회·시·BDI), 안유석 한국관 관장 등
- 주요내용 : 홍보 콘텐츠 및 홍보부스 운영상황 점검 등
- 시찰내용
  - 한국관 외관은 1,500개 이상의 돌아가는 스피ن 큐브로 구성되어 있고 3개의 램프로 이동이 가능한 거대한 트러스 구조물로, 전시·공연장 등으로 활용.
  - 매시간 10분 정도로 이루어진 공연 퍼포먼스가 있으며, AR 증강 현실 체험방식으로 휴대폰을 나누어 주고 셀카를 찍어 아바타를 신청, 이동 공간마다 휴대폰을 사용해서 설명을 봄.
  - 전시관 중 유일하게 외부로 통해 건축물 상단에서 박람회장을 조망. 한국관은 입구부터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전시관을 즐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램프를 따라 안 → 밖, 밖 → 안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건축물임.
  - 한국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오픈형 건물로 문이 따로 없는 건물이라 '누구나 환영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다른 국가관이나 전시관은 더운 날씨로 대부분의 건물들이 폐쇄형으로 지어졌지만 한국관은 바람이 통하는 구조물로 만들어 덥게 느껴지는 단점이 있음.
  - 한국관 내 부산 홍보관은 2m×3m의 협소한 공간으로 면적의 아쉬움이 있으나, 나름대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타투 등 각종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과 기념품으로 관람객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를 시행하고 있음.

- 1층 VIP룸 벽면에 부산 관광사진(광안대교, 마린시티 등)게시, 입간판 설치 등 홍보.
- 공연장 천장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하는 문구 내용이 LED 패널로 송출, 유치 홍보.



## ■ **駐두바이 총영사관 관계자 면담**

- 일시·장소 : 2021. 10. 21.(목) 18:00, 호텔 내
- 참 석 : 의장, 부의장, 경제부시장 등
- 면 담 자 : 문병준 **駐**두바이 총영사
- 주요내용
  - 두바이는 제2의 모나코, 마이애미, 라스베이저스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중동·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곳이며, 공급이 두바이로 모두 몰려 수요를 따라잡지 못함. 전 세계 바이어가 활동하는 교역의 중심지임.

- 부산-두바이 교류는 엑스포를 계기로 경제·외교적 교류의 중동지역 거점화 필요. 부산의 스타트업, 헬스케어, 관광마이스, 지역 건설업 등의 교류 및 문화교류 확대 필요.  
분야별 관계자 부산 초청 등 상호 인적교류 활성화 필요.
- [총영사 제안] 두바이 부산무역사무소 설치.

## ■ 두바이엑스포 조직위원회 관계자 면담

- 일시·장소 : 2021. 10. 23.(토) 14:00, 서스테이너빌리티 주제관 2층
  - 참 석 : 산업부장관, 의장, 경제부시장 등
  - 면 담 자 : 림 알 하쉬미(H.E. Reem Al Hashimy) 두바이엑스포 조직위원장
  - 주요내용 : 두바이엑스포 유치 전략 청취 등
    -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디자인하고 계약, 실행하는 과정으로 연결해야 함.
    - 엑스포 행사가 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증가시킨다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대응 필요.
    -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부산만의 비전을 글로벌 시각에서 제시하여 타 경쟁국과 차별화 필요.
- ☞ 두바이의 경우, 엑스포가 이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의미를 강조함.
- 신청서 작성 시 여러 주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제안과 의견이 나올 텐데 주관하는 쪽에서 중심을 잡아야 함.  
두바이의 경우 70개 이상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제안과 의견이 있었지만, 핵심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소수가 추대하여 결정함.
  - 엑스포 개최장소의 역사성을 미래와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



- 개최장소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인류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이 되며, 또한 세계 각국의 인류와 어떤 가치를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를 제시해야 함.
- 한국, 그리고 부산은 K-pop, K-beauty 등 전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유리한 상황이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와 나눌 수 있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런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공격적일 필요가 있음.
- 유치 활동은 외교부와 타 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며, 전 부처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야 함.
- 각국 정부의 입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본국 정부의 입장 못지 않게 BIE 대표부의 입장도 중요.

☞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유치관련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

- 각국을 설득하는 과정은 열정을 가지고 끈기있게 진행하여야 함. 특히, 공식적인 미팅과 함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야 함.

☞ 두바이의 경우 회원국 면담 시 가급적 통역은 배제하고 직접 소통하는 방식 활용, 회원국 대표를 한 두 번이 아닌 수십 번 만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 일본관 관계자 면담

- 일시·장소 : 2021. 10. 22.(금)/23.(토), 일본관 회의실 등
- 참석 : 의장, 부의장, 경제부시장 등
- 면담자 : 이와쿠라 마사키(Iwakura Masaki) 오사카 엑스포 추진위원회 국제관계국 대표
- 주요내용 : 오사카엑스포 추진상황 청취, 유치 교섭활동 전략 논의.
  - 오사카 엑스포 사이트는 간사이 공항철도로 30분이면 접근 가능하고,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엑스포 부지로 사용 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임.
  - 부지면적은 두바이엑스포의 1/3 수준, 파빌리온 등 전시관은 면적을 제한하며 참가국 자체 건립, 주최국에서 건립 후 임대, 개도국 공동관 건립의 3가지 형태로 구성함.
  - 오사카 박람회장 교통체계는 전시장 주위에 주차장 없이 기존 지하철 노선을 연장, 유메시마 섬(박람회장)까지 해저터널 형태의 지하철로 연결해서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도록 설계함.
  -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편임.
    - ☞ 일본의 경우 개발도상국에 약 2억 8천만 달러를 지원, 약 100개국의 개발도상국이 각 2억 2천만 달러 정도의 지원을 받았음.
  - 개발도상국 지원 내용은 파빌리온 건설, 기타 부수적인 부분인 전기, 가스, 물, 사용료, 항공권 무료 티켓 지원 등 다양하며, 두바이도 비슷한 내용으로 지원했을 것으로 생각됨.
    - ☞ 한국도 개발도상국 지원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임.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부는 없었으며, 엑스포와 관계된 지원만 했음.
    - ☞ 표면적인 개발도상국 지원 규모는 두바이와 비슷하나, 두바이는 보이지 않는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 일본의 매력을 홍보함.

- 중앙, 지방, 경제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정기업이 참여한 것은 아님.
- 중앙정부가 각국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BIE 회원국 투표결정에 정치적인 부분이 영향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정치적 협상이 큰 역할을 함.

- 오사카 엑스포 유치 투표 당시 160개국 정도가 투표함. 당시 러시아는 러시아 인근 국가, 이전 소련연방국가, 개발도상국 중 사회주의 성격을 띠는 국가들이 투표했음.
-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유럽 및 서방 국가들이 투표했음. 특히 오랫동안 개발도상국과 ODA를 통해 지원을 받은 국가들이 일본에 투표했음.
- BIE에 연간 회비를 2년 동안 연속해서 지불해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 중 대부분은 회비 납부가 힘든 상황임. 투표 전에 연간 회비를 지불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임.

☞ 일본의 경우 이러한 국가에 BIE 연간회비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의 경우 지불 여부는 알 수 없음.

- 일본은 국가간의 외교협상을 통해 투표 전에 일부 국가들로부터 지지확정 서한을 받음으로써 서면으로 약속을 받음.
- 일본은 중앙, 지방, 민간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Commisional General의 경우 국가의 대사이기도 함. 개인적으로 엑스포 특사로 임명받아 한 해 동안 48개국을 방문해 엑스포 지지를 요청했음.
- 모든 회원국에 접근하기 위해 기관별로 국가를 나누어 유치활동을 진행함.  
10~20명 정도 중앙, 지방, 민간 VIP를 선정해 모든 회원국에 지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가별로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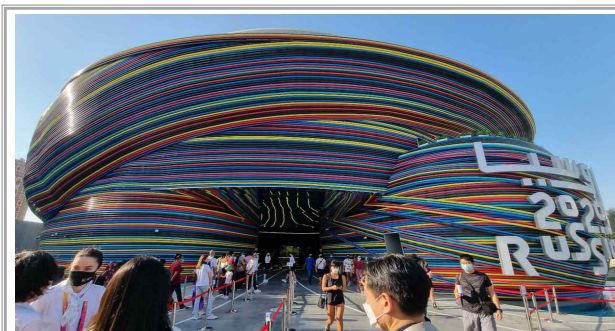


## ■ 주요 국가관 및 엑스포 주제관 등 방문

- 일시·장소 : 2021. 10. 22.(금)/23.(토), 각 국가관, 엑스포 주제관 등
- 참 석 : 출장단(시의회·시·BDI), 조숙은 한국관 홍보팀장 등
- 주요내용 : 주요 국가관 방문 및 유치 홍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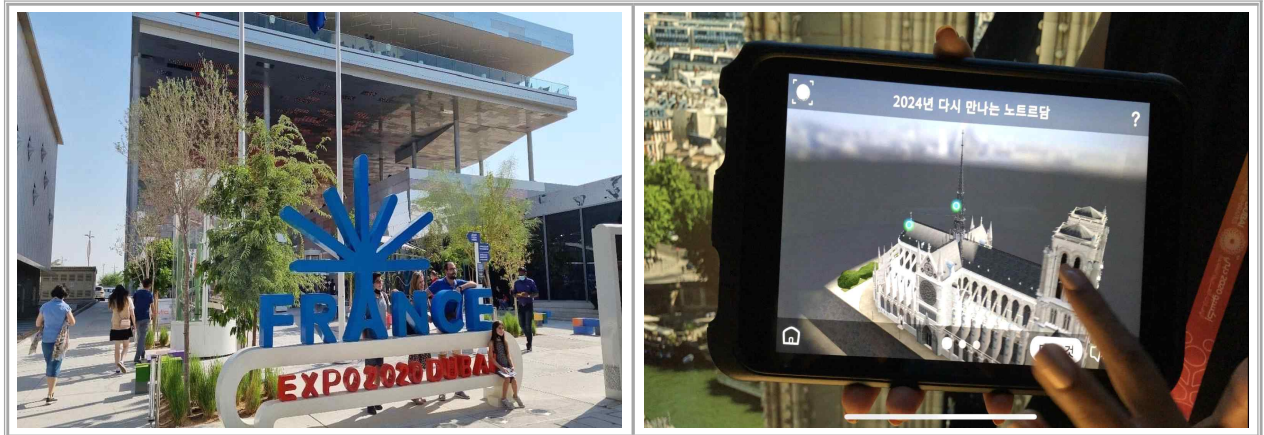
### <러시아관>

- 창의성 주제, 거대한 인간두뇌 활용 멀티미디어쇼, 기초과학의 힘 강조, 미래비전 및 국가 방향성 구현.
- 모스크바에 대한 기존 부정적 선입견 타파에 주력하는 모습. 한국·부산의 긍정요인 강조 전략 필요.



## <프랑스관>

- 북극 연구활동,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솔루션<sup>1)</sup> 제시 등 기후·환경에 대한 노력 강조.
-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과정, 문화 콘텐츠에 AR 기술 활용 문화적 자부심과 차별성 강조.



## <UAE(아랍에미리트)관>

- 건물 자체가 국가의 역사성<sup>2)</sup> 표현, 28개의 날개가 낮에는 열림, 태양광 설치.
- 전시관 내 사막 구현(모래 전시), 작은 사막 공동체에서 세계 연결 통로로 변화한 UAE의 개척정신과 연결의 힘 강조.
- UAE의 역사와 미래를 보여줌.



1) 르노그룹 모빌리티, Flying Wales(미래 운송수단)

2) 매가 날아와 앉은, 날개를 접고 펼치는 형태(팔콘 형상)



## <일본관>

- 라이프 스타일을 일상소품 활용, 캡슐 및 정교한 미니어처로 구현, 일본이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대 일본과 미래 제시.
- 미래 비전이 2025년 오사카엑스포로 연결, 엑스포를 가교로 세계가 융합·발현되는 의미 강조.
- 엑스포 국가관 내 기업인 참여 홍보활동.



## <사우디아라비아관>

- 축적된 오일머니로 발전시킨 첨단기술로의 도전과 발전 구현
- 세계최대 LED 미러스크린(1,302㎡)으로 영상을 실제처럼 구현, 디지털 워터커튼,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전시.
- 두바이 모델의 개발 방식 지향.
- 이슬람 메카(성지순례)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자부심 등 정체성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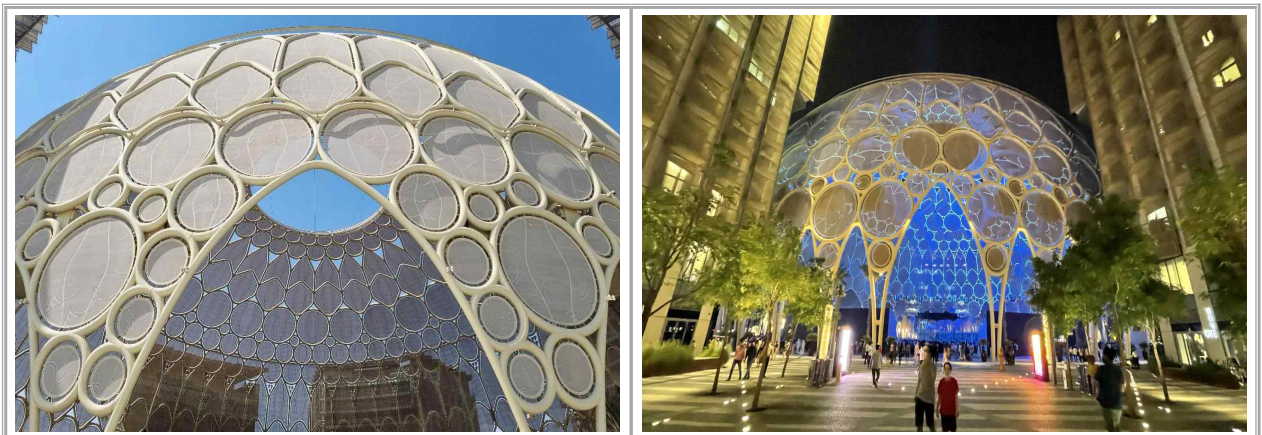
## <모빌리티 주제관>

- 아프리카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현재의 상호연결, 디지털세계, 우주여행에 이르는 모빌리티 발전과정 전시.  
UAE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스마트시티 비전과 미래 비전을 디지털 스토리텔링으로 구현.
- 인재를 도시 인프라로 생각, 세계적 인재가 두바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두바이의 정체성 구현 적극 활용, 문화적 다양성 소개.



## <AI Wasl Plaza(알 와슬 플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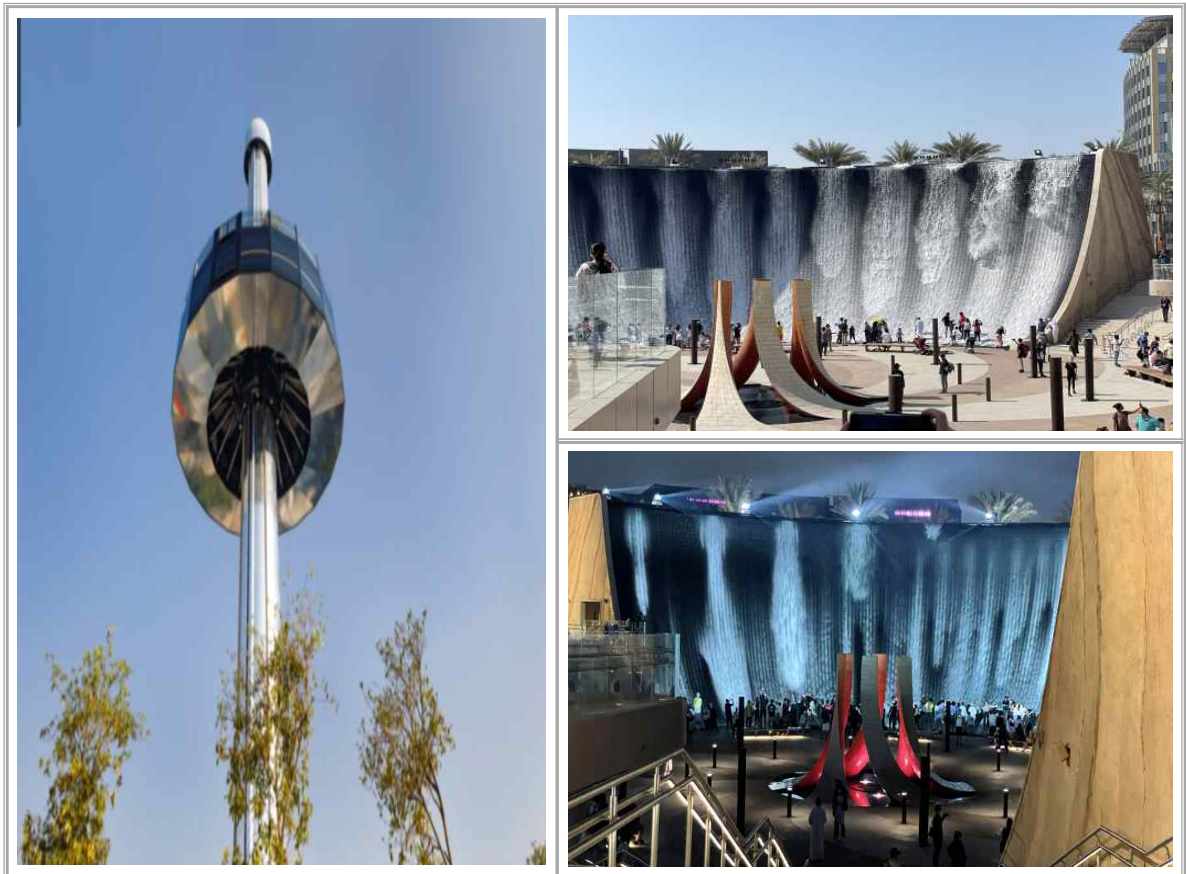
- 아랍어로 연결이라는 의미로, 박람회장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구역.  
엑스포의 小주제인 이동성(mobility), 기회(opportun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세 구역을 연결.
- 돔(L=130m, H=67m) 모양의 건축물로 개폐막식, 콘서트, 각종 공연장으로 활용되며 더운 날씨에 그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박람회장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음.





## <Garden in the Sky(하늘정원), Water Feature>

- Garden in the Sky(하늘정원)은 두바이엑스포 부지 안에 위치한 55m 높이의 전망대로, 사람을 태운 전망대가 위, 아래로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4.38km<sup>2</sup>의 엑스포 부지를 360도 조망할 수 있도록 회전함. 입장료를 별도로 받고 있으나 엄청난 규모의 박람회장 전체를 조망하기에 좋은 랜드마크형 관광시설임. 전망대는 총 2층으로 구성, 전망대 내부의 계단을 통해 1층과 2층을 오갈 수 있음.
- Expo 2020 Water Feature(엑스포 2020 워터 피쳐)는 낮에는 13m 높이의 구조물 벽을 타고 153개의 소형 파도가 시원하게 쏟아져 내림. 두바이 물의 버즈 칼리파 분수 쇼 제작에 사용된 첨단 기술이 접목됨.



## 4.

## 출장결과

### 총평 및 시사점

- 두바이엑스포는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되어 '21.10.1.~'22.3.31.까지 열리고, 지금까지 관람객은 500만 명 정도이며, '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를 주제로 열린 두바이엑스포에는 191개국이 참가하여 중동·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개최하는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엑스포임.
- 박람회장은 기술·문화적 역량과 미래 비전을 담은 각 국가관과 UAE의 문화 콘텐츠를 첨단 기술과 융합한 전시관 등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엑스포가 국가의 최신 기술을 공개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각국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와 국력을 과시하는 격전장으로 변모한 모습이었음.
-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건축 자재 사용, 에너지와 물의 소비를 줄이는 솔루션 등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사용, 전기자동차 등은 친환경적인 엑스포라고 생각됨.
- 박람회장 거리 곳곳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차양막이 설치되었고, 다양한 나무들과 잔디 등을 식재하여 더위에 지친 관람객에 시원함을 안겨주었으며, 태양열인 친환경에너지로 박람회장의 에너지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음.
- ✓ **부산세계박람회 조성 시에도 6~8월 장마와 더위가 예상되므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차양막 설치와 클링 포그 시스템 설치, 식수대, 이동식 화분 설치 등 폭염에 대비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봄.**
- 주요 전시관들은 주로 태양광 패널로 지어져 친환경적인 건축물이며, 박람회장 곳곳에는 전기로 움직이는 이동수단과 자율주행 로봇 등이 관람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음.

- ✓ 부산 박람회장은 장방형의 긴 회장으로, 내부 이동 시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자율 주행 차, 수소 이동차, 개인 모빌리티 등 이동 수단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가국 중 5번째로 큰 한국관은 연면적 약 5,212㎡,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주제는 Smart Korea, Moving the World to You(스마트 코리아, 한국이 선사하는 무한 세상)로 한국이 인류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 한국관은 바람이 통하는 개방형 구조물로 만들어 덥게 느껴지지만 11월 이후 날씨가 선선해지면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내년 1월 16일 ‘한국의 날’ 에는 K-Pop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며 엑스포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임.
- ✓ 다만 현재 문화 공연을 하고 있으나 다양한 공연과 체험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유치 경쟁국인 러시아관은 전시관 내 5m×3m 공간에 2030엑스포 모스크비존을 조성하여 유치를 홍보하고 있어 부산 홍보관도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임.
- 두바이엑스포 및 일본관 주요 인사 면담 시 외교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 경제계에서 협력하여 유치 추진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엑스포 유치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유치 전략, 범국민적 유치 열기 결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함.
- ✓ 유치를 위한 국가 외교 역량 충동원과 국력을 바탕으로 ODA·무상 원조 프로그램 활용 등 현실적 지원책을 제시하여 저개발 국가들의 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 한국, 부산은 K-Pop, K-Beauty, K-Culture 등 전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세계와 나눌 수 있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유치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음.

## 5. 주요 언론보도 사항

국제신문 | 2021-10-24

### 정부·부산시 ‘엑스포 원팀’ 첫 가동…부산 지지 요청

정부와 2030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가 부산시와 함께 처음으로 ‘원팀’을 구성해 2020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가 진행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부산 세일즈’ 활동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진행되는 두바이엑스포를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의 주요 ‘홍보 무대’로 보고 정책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문승욱(왼쪽 네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두바이엑스포 UAE관에서 알 하쉬미 두바이엑스포 조직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 ■“한국관 성공, 부산 유치에 매우 중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두바이엑스포 현장을 방문해 ▷림 빈트 이브라힘 알 하쉬미 두바이엑스포 조직위원장 ▷아우스린 아르모나이 테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장관 등과 잇따라 면담했다. 이어 행사장 내에 있는 한국관과 UAE관 등을 방문해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에는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과 부산시 김윤일 경제부시장, 2030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박정욱 사무총장,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문병준 총영사 등도 동참했다.

산업부는 “정부-유치위-부산시가 처음으로 한 팀이 된 것”이라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단합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

여했다.

문 장관 등의 이번 방문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권을 놓고 러시아(모스크바) 이탈리아(로마) 우크라이나(오데사)와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두바이엑스포를 활용해 ‘부산 세일즈’ 활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문 장관은 “한국관의 성공적인 운영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국가의 날’인 내년 1월 16일 행사 준비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관(지상 4층, 지하 1층 구조)은 행사장 내 4651.41㎡ 부지에 마련됐다. 두바이엑스포 참가국 중 UAE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프랑스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규모(부지면적 기준)다. 엑스포 메인 광장에서 도보로 3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권을 가진 전 세계 VIP들이 한국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현재 한국관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모습으로 한국의 첨단 기술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 1일 두바이엑스포 개막 이후 20여 일 만에 한국관을 찾은 관람객은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 ■신상해 의장 “정부 전폭 지원 필요”

문 장관과 함께 한국관을 방문한 신 의장은 정부에 각종 지원을 요청했다. 신 의장은 “2030 부산엑스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산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부산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라며 “엑스포 유치는 부산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행사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장관은 “미래의 모습을 전 세계에 제시하는 주제를 준비하면 경쟁국에 비해 유치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며 “부산시와 함께 노력하고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이 이날 알 하쉬미 두바이엑스포 조직위원장을 면담한 것도 의미가 있다. 오는 12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유치 신청국 간 프레젠테이션(PT)이 실시되는 등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앞서 두바이의 유치 성공담을 듣고 향후 부산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한국과 UAE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UAE 정부에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문병준 총영사는 “이번 두바이엑스포를 통해 두바이가 (부산에) 가르쳐 줄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다”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도약의 걸음을 제공할 것이다.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두바이 한국관, 부산월드엑스포로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2020 두바이엑스포' 전시장 내 한국관을 찾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부터 박정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문승욱 장관,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 손수득 코트라(KOTRA) 부사장, 문병준 주(駐)두바이 총영사관 총영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6개월 대장정으로 열리고 있는 ‘2020 두바이엑스포’(코로나19 여파로 예정보다 1년 늦은 올해 10월 1일 개막) 현장을 찾아 한국관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장관은 한국관의 성공적 운영이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국가의 날인 내년 1월16일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장관은 이날 한국관에서 문병준 주(駐)두바이 총영사관 총영사,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손수득 코트라(KOTRA) 부사장, 박정욱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 등 우리 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관계자 간담회 주요 내용.

▲문승욱 장관 모두발언=오늘 2020 두바이엑스포 현장 한국관에 와서 2030년



부산엑스포를 준비하는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코트라 부사장, 총영사 등을 모시고 모임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가 성공하려면 2020 두바이엑스포가 과연 어떠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2030년에는 우리가 어떤 주제를 마련해서 2030년 그 이후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가 (하는) 교훈을 얻는, 레슨을 받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두바이엑스포(올해 10월~내년 3월, 개최기간 6개월)가 작년에 열려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1년 늦게 (올해 10월 1일) 열렸다.

2030년이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의결한 203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해이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와 전세계가 탄소중립경제에 새 모습을 가질 것이다.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데, 2030년 그런 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주제들을 준비해서 부산에서 전세계에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주제를 준비해서, 우리가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에서 제시하면 경쟁국에 비해 유치 가능성 높다고 본다.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산업부와 부산시, 코트라 (등)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서 부산시에서 2030년에는 전세계에 우리의 하나의 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두바이에서 1년간 엑스포가 연기됐지만 어려움 속에도 잘 준비해줬다. 코트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두바이엑스포 기간이 내년 3월까지 6개월이므로) 아직 5개월이나 더 개최될 예정이지만, 한국관은 이미 방문객이 10만 명 가까이 됐다. 여기서 한국관이 가장 인기 있는 관의 하나라고 얘기들었다. 성공리에 열리고 있어서 감사하다. 끝까지 무사히 잘 해서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로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부산시가 2030년 (월드)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한다. 부산이 현재 어려운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국토 불균형의 문제 등이 있다.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인 데,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게 관광이다.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산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부산의 아름다움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여기(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 (부산)시청 김윤일 (경제)부시장이 (부산시) 순방단 꾸리면서 ‘우리가 (부산시의회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두바이에 같이 왔다.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정부 차원에서, 부산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행사이다. 정부가 전폭적 지원을 해서 내년에 (국제박람회기구가 현장) 실시하고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도와 달라.

▲문병준 총영사=문승욱 장관님, 부산시 대표님, 미래의 도시 두바이를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는 새로운 성장의 도시가 두바이다. 이번에 두바이엑스포에서 우리(한국)가 가르쳐 줄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도약의 걸음을 제공할 것이다.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